

광양서 태어난 ‘삼태아 백일’ 축하 후원금 전달

작년 말·올해 초, 두 가정서 삼태아 탄생

광양시가 백일을 맞이한 삼태아 가정을 방문해 16만 광양 시민의 마음이 모인 축하 및 후원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과 연초에 두 가정에서 삼태아가 태어나 화제를 모았다. 광양시에서 삼태아가 태어난 건 3년 만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삼태아가 백일을 맞이하는 15일 가정을 방문해 부모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이들에게는 덕담을 전했다.

정인화 시장은 삼태아에게 “광양시에서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한다. 항상 건강하고 밝는 인생이 되길 응원한다”며 백일 축하 메시지를 담은 손 편지를 전달했다.

삼태아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의 백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정 시장의 질문에 삼태아 엄마는 “아무래도 세 아이를 한꺼번에 돌보아야 하니 돌봄과 육아가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또 “아이를 더 많이 안아주고, 웃는 얼굴 더 마주하고 싶는데 그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 예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줄 시간이 부족한 점도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삼태아를 키우면서



광양시가 백일을 맞이한 삼태아 가정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양시 제공

가장 큰 애로사항인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광용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이시장은 삼태아 가정을 방문해 육아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후원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완도해경 회진파출소·장흥군 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 완도해양경찰서 회진파출소가 청각·언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6일 장흥군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진행하며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전남이민외국인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소와 업무협약 국립목포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인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전남이주여성상담소와 전남도 체류 외국인 및 이주여성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목포=김재복 기자



순천경찰·다문화 글로벌 치안봉사단, 합동 순찰 순천경찰서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글로벌 치안봉사단’과 함께 팔마대교에서 중앙초등학교 통학로 일대까지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한국생활개선광양연합회, 지역사회에 온정 광양시는 16일 (사)한국생활개선광양연합회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을 위해 우리 쌀 쌀곡수 70박스를 광양노인복지관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코로나19 전선 누빈 의사 ‘광주·전남 1호 역학조사관’



코로나19 위기 당시 병원을 나와 방역 전선에 뛰어든 의사가 광주·전남 지자체 제1호 역학조사관이 됐다. 광산구 감염병관리과의 곽형준 의무사무원이다.

광주 광산구는 16일 곽형준 의무사무관을 첫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

광산구, 곽형준 의무사무원 임명 “지역 감염병 대응 최선”

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던 그는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 9월 광산구보건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재난을 막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3년 8월 ‘수습 역학조사관’이 된 그는 백일해, 홍역, 수두, 결핵 등 다양한 감염병 발생 현장을 일터 삼아 역학조사를 수행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기본·지속 교육을 받고, 감염병·역학조사에 관한 논문을 작

성하는 등 전문 역량을 쌓았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이바지하며 까다로운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곽형준 사무관은 이날로 ‘수습’을 하며 광주·전남 최초 역학조사관이 됐다.

그는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 현장을 지휘하고, 직접 역학조사를 하는 등 감염병 유행·확산 대응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곽형준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 교육에 참여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임명장까지 받아 기쁘다”며 “광산구 첫 역학조사관으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리,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전남국제직업고 교명 ‘전남미래국제고’로 확정

전남교육청은 2026년 3월1일 개교 예정인 가정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로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명 선정은 지역민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의 비전을 잘 표현한 명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만 글로벌교육협력과장은 “학교 설립 취지와 교육 방향을 잘 담아낸 이름”이라며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다문화와 직업교육이 융합된 선도적 모델이자,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전남 고향사랑기부, 일본·중국 등 해외서도 이어져



지난해부터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전남도에 고향을 사

동경호남향우회장·상해 매한윤봉길의사가기념사업회 이사

랑하고 응원하는 해외 향우와 출향민의 고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평소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김용덕 동경호남향우회장이 500만 원, 장종섭 중국 상해 (사)매한윤봉길의사가기념사업회 이사가 300만 원을 기탁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김용덕 회장은 “고향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린 시절 저를 지켜준 고향을 항상 그

리워하는 마음으로 작게나마 보탬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힘들고 어려운 경기에도 우리나라와 전남도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기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먼 곳에서도 항상 마음 한 편에 고향에 대한 인연을 간직하면서 응원해주는 사랑에 보답하도록 기부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

인사

[인사] 서구청

◇5급 전보 ▲경제과장 정영주 ▲금호2동장 임선미

◇6급 전보 ▲문화예술과 안성진·황유진 ▲행정지원과 김운옥 ▲금호1동 강경민

광주시, 도서관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공도서관 운영 책임성 강화 부문 높이 평가



광주시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24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광주시는 공공도서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

/김도기 기자

순천교육청, 세월호 11주기 추모 행사

‘304개의 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기억과 다짐

순천교육지원청은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순천교육청 직원 100여명과 함께 묵념, 추모 메시지 작성 등의 시간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304개의 별’로 남은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월 한 달 동안 추모의 상징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며 ‘그 날’을 기억하자며 참여자들에게 조용한 울림과 숙연한 성찰의 시간을 선사했다.

순천교육청 허동균 교육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K-water 나눔재단, 산불피해 회복 성금 전달

자발적 모금 동참…성금 800만원 청송군에 전달

K-water 나눔복지재단은 최근 경북 청송군청에서 산불피해회복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성금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청송군민과 입하담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일상회복 지원 및 지역복구 작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순천 주안담노인복지관에 따르면 K-water 나눔복지재단은 지난 15일

경북 청송군청에서 산불피해회복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성금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청송군민과 입하담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일상회복 지원 및 지역복구 작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순천=조준익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영남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 7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돕기 위해 특별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공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 및 긴급 구호물품, 긴급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 박성현 사장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조준익 기자